

제 1 교시

국어 영역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맘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갈매기들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B]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C] 저십이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관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D] 고비사막을 뚫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언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E] 내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

(나)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견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海路)가 일렁일지라도

나는 홀로이니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니라.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感傷)의 물거품으로
자폭(自暴)의 잔(盞)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원뿔을 내어맡긴 천인(千仞)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 김종길, 「바다에서」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 기법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바다의 흰갈매기’에 빗대어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② [B]: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려는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 ③ [C]: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D]: ‘지구의 반쪽’을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하며, ‘행상대’나 ‘인디언’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오월의 골방’에서 ‘아늑’함을 느끼면서 ‘내일도’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나)를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구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차운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 ② 화자는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도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군.
- ③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간 스러’졌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원뿔을 내어맡’기며 현재의 바다와 맞서고 있군.
- ④ 화자는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라는 부정적 과거가 ‘아득히’ 사라져 현재의 자신과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군.
- ⑤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에서는 대립적 구조를 이용해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가)에는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골방 안과,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이 존재하는 골방 밖 세계의 대립이 나타난다. 커튼이 쳐진 골방 안의 고립성과 골방 밖 세계의 개방성이 대립 구조를 이루며 화자의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에서 바다와 하늘은 상하 공간 구조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다와 긍정적 대상인 하늘을 대비하여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내면 상황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 골방 안과 골방 밖 세계라는 대립적 구조를 이루는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군.
- ②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중에서 소외된 상황에 놓인 존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군.
- ③ (가)에서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골방 안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 ④ (나)에서 화자는 ‘천인의 깊이’의 바다를, 이와 대비를 이루는 ‘꿈꾸’어야 할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내면의 슬픔을 극복하려 하고 있군.
- ⑤ (나)에서 화자는 ‘이마를 적’시는 바다에 ‘울음을 참’으며 대응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는 능동적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일자무식에 머슴살이 하던 민시영은 아내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십 년 동안 학업에 전념하기로 약속하고 고향을 떠난다. 북한산에 사는 월봉대사는 민시영의 사연을 듣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정성에 감동 받아 그를 가르치게 된다.

이 이후로부터 문밖을 나서지 아니하고 오륙 년을 공부하니 진실로 아름다운 선비가 되었다.

생이 하루는 여쭙었다.

“공부가 점점 안정(眼睛)*에 열리되 이목(耳目)에 한 번도 시험치 못하였으니 일시(一時) 과장(科場)을 구경하고 싶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아직 말라. 네 마땅히 과거 시험 할 날이 있으니 그리 알라.”

하시니 차후로 다시 청치 못하고 또 수년을 보내니 문사(文辭)가 자못 뛰어나 통달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일일은 대사가 갑자기 물었다.

“네 정시(庭試)를 보고자 하는가?”

생이 말하였다.

“진실로 원하는 바이로되 과장의 기구가 없사오니 어찌 하오리까?”

대사가 말하기를.

“네 무슨 근심이 있나뇨? 내 이미 장치(裝置)하였노라.”

하고 인하여 폐글제를 써주되 ‘한군신(漢君臣)이 하득제갈량(何得諸葛亮)이라.’하고 써주며 스스로 한 수(首)를 짓고 또 생으로 하여금 지으라 하시며 말하기를,

“장중(場中)에 들어가 만약 네 이런 글제를 보거든 두 수(首)중에 네 소원대로 써 바치라.”

하고 이미 장치하였던 필묵을 내어주며 읍(揖)을 맞아 보내며 당부하였다.

“만약 천은(天恩)을 입어 폐하를 보면 응당 묻는 말씀이 있을 것이니 내게 와 고하던 대로 조금도 숨기기 말고 고하되 조심하고 조심하라.”

생이 재배(再拜)하고 말하였다.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하직하고 떠나 장중에 들어가니 대포 소리 한 번 울리며 글제를 판상에 내어 걸거늘 쳐다보니 선생의 가르치던 글제와 같은지라. 머리를 숙이고 사례하여 말하였다.

‘선생의 명령이로다.’

그제야 선생이 지어주신 한 수를 써 문하(門下) 중에 던졌다. 조금 있다 우레같은 소리 일장(一場) 중에 시끄러워 놀라 들으니 민시영 성명 석 자를 과장에 두루 다니며 외치는 소리였으나 아는 자가 없었다. 민생이 생각하였다.

‘선생이 나를 보내실 제 이름은 시영이라 하고 자는 공화라 하옵기로 이로써 봉내(封內)에 넣었더니 진실로 나 아닌가?’

주저하고 바랄 제 호명하는 자가 모습을 살펴 그가 민시영인 줄을 알고 말하였다.

“그대가 민시영이 아닌가?”

곧 앞서 이끌며 몰아내자 따라 들어가 전정(殿庭)에 숙배하니 임금이 물으시기를,

“선조는 누구고 살기는 어디며 생장고락(生長苦樂)은 어떻게 지냈는가?”

라 하였다. 생이 감히 사정을 숨기지 못하여 하나같이 대사가 가르치던 대로 전후의 수말(首末)을 낱낱이 대사의 앞과 같이 하니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내 어젯밤 몽중(夢中)에 어떠한 도사 한 분이 와 날더러 이르기를 ‘폐글제는 이러한 글제를 내라.’ 하되 그 연고를 해독치를 못하였더니 이제야 그 부인의 지성을 상제(上帝)께옵서 감응하시어 내 마음을 깨치게 함이라. 또 몽중 도사는 너의 선생 월봉대사요, 글제의 ‘하득제갈량이라.’하는 것은 내 시영을 얻을 징조로다. 오호라,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가빈(家貧)에 사현처(思賢妻)요, 국난(國難)에 사양상(思良相)이라.’ 하였으니 내 나라가 어지러움을 근심함에 또한 양상을 얻었고 네 가빈하니 또 양처를 얻었도다. 나를 도와 감히 사정을 숨기지 아니하니 장차 반드시 너를 기다려 헤아리지 못할 높은 지위로서 특별히 유사(有司)에게 명하겠노라.”

(중략)

소비가 말하였다.

“아까 일각문 밖의 어깨춤 추던 걸인을 몰아내었더니 곧 서당에 들어가 도련님을 무릎 위에 앉히고 ‘나는 네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하니 이것이 무슨 변괴리오?”

발을 구르고 실색하니 부인 역시 크게 놀라 급히 나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비록 구 년 전 안목을 하룻밤 보았으나 말소리를 모를소냐? 허허 길게 탄식하고 돌아 들어와 이불을 덮어쓰고 스스로 하는 말이,

“집 떠난 지 구 년 만에 굶주림과 추위가 자못 심하여 떠돌아 다니다가 고향 생각 간절하여 돌아온 것이 괴이하도다. 대장부가 아녀자와 더불어 십 년의 기약을 서로 하였는데 저다지 신의 없이 돌아오니 어찌 그러리오? 비록 그러하나 잠깐 용모를 살펴보니 티끌의 때가 없고 정수리에 은은한 정기가 있고, 미간에 아름다운 태도를 감추고 있으니 의관은 남루하나 완전히 진흙 속의 옥이 티끌 밖에 드러나 있도다. 반드시 무슨 거동이 있을 것이라. 손질을 살펴보니 품들고 걸식하던 모습도 아니도다. 기약을 어겨서 혼연히 받아들이면 이는 반도지폐(半途之廢)*가 될 것이니 물리쳐 나중의 모습을 보리라. 고인이 이르기를, 옛날 소진이도 그 아내에게 곧 박함을 보고 스스로 공부한 지 삼 년 후에 육국(六國) 상인(相印)*을 차고 다시 만났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리라.” 이를 갈고 앉았으니 조금 있다가 아이 들어와 부인에게 고하였다. “아버지 밖에 와서 안으로 들어올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모친 앞에 고하라 하더이다.” 부인이 듣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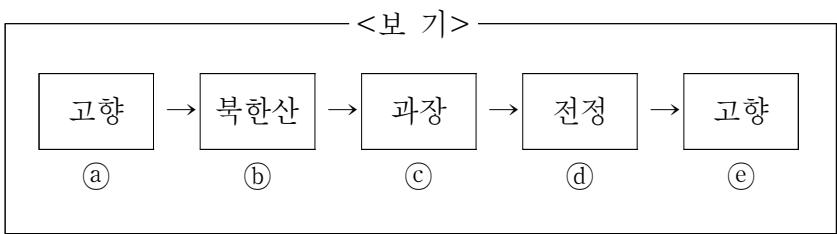
[B] “이 어찌한 말이며, 이 어찌한 말이고? 네 아비 생별할 때에 정연(定然)이 언약하기를 한 십 년 기약하되 만일 기약 전에 돌아오면 비록 구 년 선달 이십구 일이라도 맹세코 서로 아니 볼 양으로 서로 약속하였으니, 부군이 어찌 기약을 어기어 돌아올 이치 있으랴? 설사 참으로 네 부친이라도 나는 반드시 보지 아니 할 것이니 이는 천만부당한 일이라. 혹 중간 무뢰배가 네 아비와 동무함에 정담(情談)의 말을 듣고 간사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 유를 지었을 것이니 신속히 쫓아내라.”

— 작자 미상, 「민시영전」 —

*안정 : 눈동자. 여기서는 학문에 대한 안목을 가리킴.
*가빈에 사현쳐요, 국난에 사양상이라 : 집안이 가난하면 현명한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려우면 어진 재상이 생각한다.
*반도지폐 : 일을 중간에서 그만 둠.
*상인 : 재상의 도장.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시영은 월봉대사가 허락할 때까지 과거 시험을 보게 해 달라고 거듭 부탁하였다.
 - ② 월봉대사는 과거 시험에서 사용할 필묵을 준비하지 못한 민시영을 꾸짖었다.
 - ③ 임금은 민시영의 뛰어난 글재주를 칭찬하며 그가 겪은 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 ④ 절인의 정체를 눈치 챌 소비는 그를 도련님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였다.
 - ⑤ 부인은 아들과 함께 있는 절인의 말소리를 통해 그가 남편임을 알아보았다.

6.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공간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시영이 ㉠을 떠난 사연은 ㉢에서 월봉대사의 마음이 움직이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② 민시영이 ㉢에서 겪은 일은 ㉢에서 월봉대사가 의도한 대로 전개된 것이다.
- ③ ㉣에서 임금이 한 말을 통해 ㉢의 상황이 예정되어 있었음이 드러난다.
- ④ ㉣에서 임금이 유사에게 내리겠다는 말한 명에 따라 민시영은 아름다운 의관을 갖추어 ㉢로 돌아온 것이다.
- ⑤ ㉢에서 부인이 민시영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민시영이 ㉠에서 부인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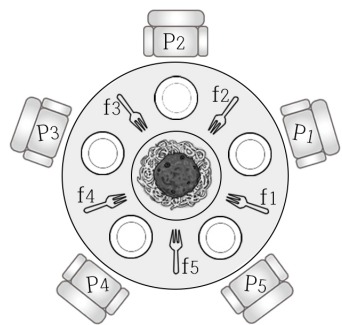
「민시영전」은 영웅소설의 계열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달리 이 작품에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으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영웅적 행위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민시영이라는 평범한 인물이 아내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조력자의 도움으로 학업을 성취하고 입신양명하는 성공담을 담고 있다. 이때 주인공인 민시영보다 더 부각되는 인물은 그의 삶을 변화시킨 아내이다. 우부(愚夫)인 민시영의 성공은 무엇보다 아내의 정성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① 임금이 영웅적 행위를 보여 주지 않은 민시영에게 높은 지위를 내리겠다는 것을 보니, 평범한 인물이 입신양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임금이 나라의 어지러움을 근심하는 것을 통해 민시영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초월적 능력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임금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부인이 소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민시영을 쫓아내려는 것을 보니, 정해진 기한만큼 남편을 학업에 정진하게 하려는 아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월봉대사가 민시영에게 제시한 글제와 임금에게 제시한 글제가 동일한 것을 보니, 민시영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의 도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임금이 민시영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에게 양처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민시영의 삶이 변화하는 데 아내의 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군.

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현재 자신이 깨달은 바를, [B]는 지난 일을 언급하며 자신이 결심한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말은 일에 대해 상대방이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하고, [B]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불가피한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기를 권하고 있다.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컴퓨터 과학자 데이크스트라가 고안한 ‘철학자의 만찬 문제’는 컴퓨터 내에서 여러 프로세스*가 서로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작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교착 상태’와 특정 프로세스가 원하는 자원을 계속 할당받지 못하는 ‘기아 상태’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활용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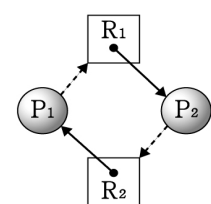
<그림 1>처럼 다섯 명의 철학자(P1~P5)가 앉아 있는 자리 왼쪽에 포크(f1~f5)가 각각 하나씩 놓여 있다고 하자. 가운데 놓인 스파게티를 덜어 오기 위해서 철학자는 양옆의 포크를 동시에 이용해야 하며, 다른 철학자가 사용 중인 포크는 사용할 수 없다. 또 모든 철학자 Pn이 왼쪽의 포크 fn을 먼저 든 다음 오른쪽 포크 fn+1을 들어서 스파게티를 가져오기로 약속했을 때, 스파게티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철학자가 동시에 왼쪽 포크를 들게 되면, 오른쪽에는 남은 포크가 없어 모두가 무한정 서로를 기다리는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 또한 교착 상태가 해결되더라도 여러 이유로 특정 철학자에게 포크를 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특정 철학자만 스파게티를 먹지 못하는 기아 상태가 발생한다.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CPU나 메모리 등과 같은 공유 자원을 이용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교착 상태와 기아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철학자의 만찬 문제’에 대해 데이크스트라는 ① 모든 철학자 Pn이 동시에 포크 fn을 집을 때 P5만 f1을 집도록 하면 적어도 한 명은 식사를 할 수 있어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교착 상태는 예방, 회피, 발견 및 복구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데, 우선 교착 상태의 네 가지 필요조건 중 하나를 부정함으로써 교착 상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교착 상태는 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을 요구하는 ‘상호 배제 조건’, 프로세스가 할당된 자원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자원을 기다리는 ‘점유 대기 조건’,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의 사용을 끝낼 때까지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비선점 조건’, 프로세스가 순환적으로 다음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순환 대기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배제 조건을 부정하거나, 특정 프로세스의 실행 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미리 할당하여 점유 대기 조건을 부정하는 방법, 자원에 고유한 순서를 할당하여 순환 대기 조건을 부정하는 방법 등으로 교착 상태를 예방한다. 하지만 어떤 자원들은 근본적으로 동시에 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호 배제 조건은 부정할 수 없다. 한편 교착 상태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장치의 이용률과 속도가 저하되고 기아 상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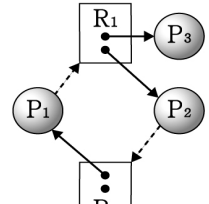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착 상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은행원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있다고 하자. A, B, C의 고객이 각각 최대 60달러, 40달러, 50달러를 빌리려고 한다. 은행은 현재 A, B, C고객에게 각각 30달러를 빌려준 상황이다. A, B, C고객들은 각각 30달러, 10달러, 20달러의 돈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만 은행은 고객들

에게 돈을 빌려주고 남은 10달러만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은 대출 가능한 10달러 전부를 B고객에게 빌려주고 그 고객이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A고객이나 C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B고객에게 남은 돈을 먼저 빌려주면 모든 고객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경로의 안전 순서열(B-A-C, B-C-A)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시스템 내에 안전 순서열이 존재하는 상태를 ‘안전 상태’라고 하는데, 이러한 안전 상태에서만 프로세스에 자원을 분배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교착 상태를 발견하여 복구하기도 하는데, 교착 상태를 발견하는 방법으로는 ‘자원할당 그래프’를 이용한다. 자원할당 그래프는 프로세스와 자원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순환 대기 조건을 발견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판단한다. 자원 Rn으로부터 프로세스 Pn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점유선, 프로세스 Pn에서 자원 Rn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요구선이라고 했을 때 <그림 2-1>처럼 서로 공유하는 자원 R1, R2를 두고 점유선과 요구선이 순환하는 형태일 때 교착 상태임을 발견할 수 있다. 또 <그림 2-2>처럼 순환 구조가 존재하더라도 R2처럼 한 가지 종류의 자원에 동일한 단위 자원이 여러 개 있어 프로세스의 요구대로 자원 할당이 가능하거나, P3처럼 순환 구조에서 독립적으로 단위 자원을 점유하고 있어 반납한 단위 자원을 P1에게 할당할 수 있을 경우 교착 상태로 보지 않는다.



<그림 2-1>



<그림 2-2>

교착 상태가 발견되면 교착 상태 해결을 위해 시스템을 교착 상태 이전으로 복구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교착 상태를 복구시키는 방법으로는 주로 교착 상태에 속한 프로세스들을 중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이나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교착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저하보다 큰 경우 발견된 교착 상태를 무시하기도 한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교착 상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내 특정 프로세스에 기아 상태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프로세스의 시작을 보류하도록 조치하여 기아 상태를 해결한다. 이와 같은 교착 상태와 기아 상태의 해결을 통해 컴퓨터의 운영 체제는 각 프로세스를 위한 공유 자원들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프로세스: 실행 중인 프로그램.

9.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프로세스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미리 할당할 경우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
- ② 안전 순서열이 여러 개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원을 분배할 경우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
- ③ 교착 상태를 무시할 경우 교착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컴퓨터의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 ④ 교착 상태에 속한 프로세스를 중지시킬 경우 시스템을 교착 상태 이전으로 복구할 수 없다.
- ⑤ 특정 프로세스만 원하는 자원을 계속 할당받지 못할 경우 새로운 프로세스의 시작을 보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배개 베고 시를 얻어 계속 읊조리자니	枕上得詩吟不輟
마구간의 마른 말도 더욱 길게 우는구나	羸驂伏櫪更長鳴
밤 깊어 초승달은 그림자를 만들고	夜深纖月初生影
고요한 산 찬 솔도 절로 소릴 내누나	山靜寒松自作聲
늙은 종이 재를 털자 등불은 밝아지고	老婢撥灰明兀兀
아내는 ㉠술을 퍼와 내게 권해 따라주네	孺人挹酒勸卿卿
얼큰해져 이불 덮고 다시 높이 누웠자니	醉來捉被還高臥
가슴 속에 불평 있음 깨닫지 못하겠네	未覺胸中有不平

- 박은, 「야와송시유감(夜臥誦詩有感)」 -

(다)

서파삼우(西坡三友)란 나의 벗 이이립이 스스로 지은 별호이다. 이이립은 사람들 중에서 호걸이다. 소년에 육경(六經)에 통하여 우리 유학에 명성을 독차지하였고, 을유년 과거에 급제하여 대간(臺諫)을 역임하고 인물을 선발하는 직무를 맡아 10년을 벼슬길에 있으면서 공로와 이름이 현저하니, 하늘이 낸 재능이라 일컬을 만하다. 기해년 가을에 벼슬에서 물러나 남방으로 돌아와 영천(永川)의 서파리(西坡里)에 살면서 스스로 짓기를 서파삼우(西坡三友)라 하니, 세 벗이란 확대경과 뿔잔과 쇠칼이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벗과 떨어져 혼자 사니 사람들이 나와 벗하지 않고, 나도 또한 사람들과 사귀려 하지 않았다. 이에 세 물건으로 벗을 삼으니, 확대경으로서 꿰이는 것을 맡게 하고, 뿔잔으로 술을 숭상하고, 칼로 생선을 회하여 혼자서 술 붓고 마시니 이내 취하고 배가 불렀다. 생선 나고 쌀 나는 시골에 살면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들을 벗으로 취한 까닭이다. 자네는 이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 의미를 부여해 주기 바란다.” 했다.

나는 벗이라는 것이 그 마음의 덕을 벗하는 것이니 진실로 벗할 덕이 있다면 사람과 물건을 모두 벗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사람이 허다하게 물건으로 벗을 삼았다. 그런데 물건 중에 취하여 벗으로 삼을 것이 이것만이 아니거늘, 반드시 이로써 벗을 삼은 것을 어찌 참으로 입으로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한 계책이라고 하겠는가. 그가 겸손하게 말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확대경은 불을 취하는 기구이다. 한 번 그 불을 얻어 꺼지지 않게 하면 그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마치 마음의 밝은 덕을 한 번 밝혀 그치지 않게 하면 그것이 다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불을 취한 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날로 새롭고 또 새로운 공(功)이 있으리니 어찌 불을 화덕에 피울 뿐이겠는가. 뿔잔은 바로 뿔로 된 것이니 가운데가 비었고 안으로 향하여 아래로 임하는 길이 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이 맑거나 흐리거나 물건을 포용하는 아량을 품고 있다. 이것을 쓰는 자가 그 덕을 생각하면 반드시 도를 즐기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어찌 석 잔 술의 의미를 알지 못할 우려가 있겠는가. 칼이라는 것은 쇠이다. 가을의 기운과 부합하니 그 덕은 예리한 데에 있다. 그 예리함을 물체에 쓰매 진평은 고기를 공평하게 잘 나누었고, 정치에 쓰매 여회는 일을 결단력 있게 잘 처리했다. 칼을 잡고 용도를 자세히 살피고 칼을 성급하게 쓰지 않는다면 남들이 어찌 감히 옳은 말을 거역하겠는가. 안으로 스스로 몸을 닦는 방법과 밖으로 백성에 임하는 도리가 실로 이 세 가지에 갖추어져 있다.

공자가 일컬은 ‘유익한 벗[益友]’과 맹자가 논한 바 ‘존경하는 벗[尙友]’이라는 말이 본래 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벗을 얻었으니 벗을 취하는 법을 안다고 이를 만하다. 그 취하여 잘 쓰는 바가 어찌 작겠는가. 훗날에 예를 갖춘 부름에 응하고 대신의 직책을 받아서, 백관을 진퇴시키고 일세의 인재를 길러내어, 위로 군왕의 치화(治化)를 돕고 아래로 청사(靑史)에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이 삼우(三友)에게 힘입지 않았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아, 대장부가 이 세상에 나서 때를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운명이다. 그러나 바야흐로 밝은 임금이 위에 있어 천지가 조화를 이루고 만물이 무성하게 이루는 도가 새로우니 함께 나아갈 때이다. 내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눈을 씻고 기다리겠노라.

- 유방선, 「서파삼우설(西坡三友說)」 -

1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의 형식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③ (다)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인간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는 작가가 간성 지역의 군수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이다. 그는 당시 불리던 노래들이 사대부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옳은 소리를 담은 노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모두 흥겹게 즐기자는 내용 속에 부분적으로 권계의 내용을 담았다. 이 작품에는 현재를 즐기되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낙이 불음(樂而不淫)’ 사상과 중심(中心)을 지키는 것이 사대부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

- ① ‘고조’를 아는 사람이 없고 ‘정성’이 아득하니 다시 불러 보겠다며 옳은 소리를 담은 노래가 사대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해학’과 ‘즐김’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남을 괴롭히거나 거칠어서는 안 된다는 절제를 강조하는 낙이불음 사상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좌상’에 손님이 있다는 것과 ‘이 해’가 저물었으니 즐겁게 놀자는 것을 보아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과 현재를 즐기고자 하는군.
- ④ ‘외모’를 위하기보다 ‘중심’을 즐기라는 것을 보아 겉치레보다 마음속을 지키는 것이 사대부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는군.
- ⑤ ‘종고금슬’로 날마다 즐겨 노는 것은 ‘화옥’을 꿈꾸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권계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군.

16.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확대경’의 기능을 바탕으로 ‘이이립’이 밝은 덕을 밝혀서 지닐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② ‘나’는 벼를 취하는 법을 아는 ‘이이립’이 새로운 때를 만나 나라를 위해 능력을 펼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 ③ ‘나’는 ‘이이립’의 이야기를 듣고,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나아갈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 ④ ‘나’는 ‘뿔잔’의 생김새를 바탕으로 이를 벼 삼은 ‘이이립’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나’는 ‘칼’의 특성을 바탕으로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공평함과 결단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문학 작품에서 대상을 인지하는 주체는 교감을 통해 대상이 자신의 행동에 반응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대상에 보편적 속성 이상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때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일 수도 있는데, 그 기저에는 모든 만물과 교감이 가능하다는 문학적 상상력이 존재한다.

- ① (나)에서 ‘시’를 읊자 ‘말’도 길게 운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대상이 자신의 행동에 반응하고 있다고 느낀 것이겠군.
- ② (나)에서 ‘늙은 종’이 재를 털어 ‘등불’을 밝히는 것은 화자뿐만 아니라 늙은 종도 자연과 교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초승달’이 그림자를 만들고 ‘술’도 소리를 낸다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교감을 하고 있다는 문학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④ (다)에서 ‘이이립’이 자신의 별호를 스스로 ‘서파삼우’라고 지은 것으로 보아, ‘이이립’은 사물에 보편적 속성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겠군.
- ⑤ (다)에서 ‘나’가 ‘세 벼’의 의미를 ‘이이립’ 대신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아, ‘나’는 ‘이이립’과의 교감을 통해 그가 사물로 벼를 삼은 이유를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18.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감흥을 자아내는, ㉡은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소재이다.
 - ② ㉠은 화자가 풍류를 즐기게 하는, ㉡은 화자의 근심을 잊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소박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은 화자의 유유자적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성찰하도록 이끄는 소재이다.

[19~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가들은 상대적 우위를 갖는 재화는 수출하고 상대적 열위를 갖는 재화는 수입하여 쌍방 간 이득을 취한다. 국제무역의 기본 모형인 리카르도 모형은 이러한 무역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리카르도에 ㉠ 따르면, 무역할 재화, 즉 교역재가 상대적 우위를 가지려면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 생산비란 어떤 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즉 노동소요량을 시간당 임금과 곱한 값이므로 각국은 기술력을 ㉡ 높여 노동소요량을 줄이거나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임으로써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한 나라에서 특정 재화가 상대국에 대해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지 여부는 ‘상대적 임금’과 ‘상대적 생산성 우위’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적 임금이란 자국의 임금을 상대국의 임금으로 나눈 값이고, 상대적 생산성 우위란 상대국의 노동소요량을 자국의 노동소요량으로 나눈 값인데, 각국은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자국의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제품에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각국은 이렇게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 제품을 상대국에 수출하게 된다.

그렇다면 ㉢ 이렇게 선택적 생산을 통한 무역이 양국 모두에게 정말 이득이 될까? 아래의 <표>를 바탕으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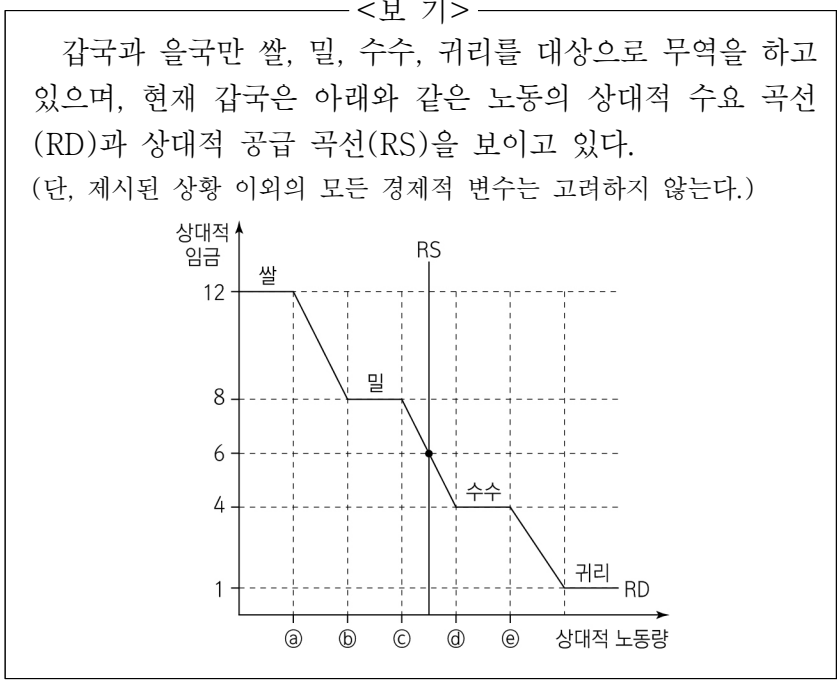
제품의 종류	A국의 단위당 노동소요량(a)	B국의 단위당 노동소요량(b)	A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b/a)
I	1	6	6
II	3	12	4
III	6	12	2
IV	18	9	0.5

<표> A국과 B국의 노동소요량과 A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A국의 시간당 임금이 B국의 3배, 즉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이라고 가정할 때, A국은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3보다 큰 제품I과 II는 수출하고 3보다 작은 제품III과 IV는 수입하고자 할 것이다. 이때 A국이 수입하는 제품III을 1단위 생산하는 데 B국은 12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이므로 B국의 12시간 노동이 A국에게는 4시간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A국에서 4시간 노동을 위해 필요한 임금으로 B국에서 제품III을 1단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A국의 노동소요량인 6시간과 비교했을 때 제품III을 A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B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논리로 나머지 제품의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 따져 보면 제품IV는 B국에서, 제품I과 II는 A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대적 임금과 국제무역의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시장가격이 정해지듯 노동량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이 현재보다 높아진다면, A국에서 생산되는 재화들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질 것이다. 그러면 해당 재화에 대한 B국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A국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A국이 더 적은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 동안 B국이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A국의 노동 수요는 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에서 3.99로 변했다고 가정해 보자.

2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RS와 RD의 교점이 ㉠과 ㉢ 사이로 이동하더라도 쌀 생산비에 우위를 갖는 국가는 바뀌지 않았군.
- ② RS와 RD의 교점이 ㉢와 ㉣ 사이로 이동할 경우 밀 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의 일부가 을국에서 갑국으로 이동하였군.
- ③ RS와 RD의 교점이 ㉣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갑국에서 생산하는 밀에 대한 을국의 수요량은 점차 줄어들게 되겠군.
- ④ RS와 RD의 교점이 ㉤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갑국이 생산하는 밀의 가격은 현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지겠군.
- ⑤ RS와 RD의 교점이 ㉤와 ㉥ 사이에서 형성될 경우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수수를 생산하게 되겠군.

23. [수송비]를 고려했을 때, ㉤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수송비가 자국의 생산비보다 적게 소요될 때에만 이익이 된다.
- ②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자국의 수송비가 상대국의 수송비보다 더 적게 소요될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
- ③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수송비가 부과되더라도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임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
- ④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수송비가 부과되었을 때에도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이익이 된다.
- ⑤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자국의 생산비와 수송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의 동일 임금 대비 노동시간이 상대국보다 적은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

24.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고인의 뜻에 따라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
- ② ㉡: 그는 모두 함께 참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③ ㉢: 나는 그에게 왜 책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 ④ ㉣: 그들은 슬픈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 ⑤ ㉤: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편집국 안에 들어섰을 때, 그가 두려워하고 있던 예측이 이젠 어쩔 수 없게 된 것을 최초로 그에게 느끼게 해준 것은 국내(局内)에서 심부름하는 계집애의 표정에서였다. 여느 때 그 계집애는 만화가를 만화 속의 인물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탓인지 그를 보기만 하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헛가버리곤 하는 것이었는데, 그날은 제법 나뭇이 ‘안녕하세요’를 하고 나서 미소를 띄운 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는 것이었다.

그것이 극히 잠깐 동안이었지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그에게 모든 걸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계집애가 자기를 올려다보던 맑은 눈 속을 살짝 스치고 가던 게 어찌면 연민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자 분노보다도 오히려 전신에서 맥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는 느끼면서 굳어진 얼굴로 문화부를 향하여 갔다.

자기들의 데스크 앞에 앉아 있던 몇 명의 기자들이 여느 때와 달리 유별나게 반갑게 인사할 때는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도 덩달아서 지금 작별을 하듯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 그는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 수 없었다. 흐르던 시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공백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함께 그를 엄습했다. 그러고 있는 그를 문화부장이 구해줬다.

㉠ “오늘치 만화 좀……”

하면서 문화부장은 손을 내밀었던 것이었다. 그는 당황해졌다. 그가 짐작하고 있던 사태 속에서는 문화부장의 지금 얘기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 그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서류봉투를 살그머니 좀더 힘을 주어 끼면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빨개진 얼굴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말했다.

㉡ “그러오지 않았는데요.”

말하고 나서 그는 금방 후회했다. 어찌면 자기의 짐작이란 게 얼토당토않은 게 아닐까…… 자기의 신경과민으로 자기는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나 문화부장의 다음 말은 그의 그러한 희망에 찬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다.

㉢ “그럼 알고 계셨군요.”

문화부장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그에게 말했다.

“차나 한잔 하러 가실까요?”

할 얘기가 있다는 암시를 그에게 주면서 문화부장은 그의 앞장을 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주 섭섭하게 됐습니다. 썩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었는데……” 다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문화부장은 그에게 말했다.

“저는 이형(李兄)을 두둔했습니다만…… 국장님도 이형의 만화에는 항상 칭찬을 하셨었는데…… 그…… 독자들이 자꾸 투서를……”

“아니 사실 재미가 없었지요.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는 문화부장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게 미안해서 얼른 말을 받았다.

“아니지요. 독자들이 이형의 유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뿐이지요.”

[종략 줄거리] 신문사에서 해고당한 그는 다른 신문사의 문화부장을 찾아가 차 한잔 마시자고 권하며 만화 연재를 부탁한다. 그러나 문화부장은 신문사에 돈을 쓰지 않는 사장을 핑계로 부탁을 거절하고 찾값을 먼저 계산한다. 그는 만화가인 김선생을 만나 술을 마시며 자신에게 해고를 통보한 문화부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왔던 ㉢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눈알을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찾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작달막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안하게 해줬었지.

[A]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뚱겨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차나 한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다. 아시겠습니까, 김선생님?”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을 한모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해해, 이건 낙관적이죠, 김선생님?” 그는 김선생이 방금 비워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아시겠습니까? 김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뭐가 생길 테지.”

김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다.

“자, 드세.”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 끝에 앞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 “자, ‘아톰X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쭈셨기 때문이다. “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협해져 있는 데서 ‘다음 호에 계속’이었군…… 미안하다. ‘아톰X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에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톰X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톰X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의 광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 있게.”

— 김승옥, 「차나 한잔」 —

25.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의 장면을 삽입하여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말과 내적 독백을 교차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 간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치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의 만화를 형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② ㉡: 자신의 해고를 짐작하며 ‘문화부장’에게 말하고 있다.
- ③ ㉢: ‘그’가 만화를 그려 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기다리면 새로운 일거리가 생길 것이라며 해고당한 ‘그’를 위로하고 있다.
- ⑤ ㉢: ‘아톰X군’을 더 이상 그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해고 상황을 국장의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
- ② ㉢은 만화가의 자질에 대해 말하며 ‘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 ③ ㉢은 ㉠과 달리 ‘그’에게 먼저 차를 마시자고 권한다.
- ④ ㉠과 ㉢은 모두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의 제안은 거절한다.
- ⑤ ㉠과의 만남과 ㉢과의 만남은 모두 ‘그’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만화가가 겪는 하루의 사건을 통해 1960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의 생계에 대한 불안과 비애를 드러낸다. 작품에서 만화가는 만화를 충실히 연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고를 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유적 표현, 모순 형용 등을 활용한다. 또한 자신이 그리는 만화 속 가상의 인물에게 말을 하는 상황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 ① ‘그’가 ‘계집애’의 표정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던 예측이 이제 어쩔 수 없게’ 되었다고 느끼는 모습을 통해 해고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는 ‘그’의 불안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그’가 자신의 해고를 ‘미역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고당하는 상황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그’가 자신의 해고를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해고한 신문사로부터 다시 만화 연재를 의뢰받게 되리라는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그’가 ‘차나 한잔’의 의미를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고를 당한 ‘그’의 비참한 심리를 모순 형용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그’가 ‘아톰X군’의 얼굴을 술상 위에 그렸다 지우며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9~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다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 소멸되어 버리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실존적인 불안은 세상의 모든 개체들이 다른 모든 개체들과 수평적 모순 관계 속에, 그리고 개체의 존재와 소멸을 주관하는 미지의 절대적 존재와 수직적 모순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수평적 모순’은 개체들 간의 다름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뜻하며, ‘수직적 모순’은 절대적 존재가 개체에게 늘 알 수 없음으로 남아 있어 비롯되는 갈등을 뜻한다. 이 실존적 불안에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폴리스가 형성되기 전의 고대 그리스에서 절대적 존재는 각 개체에게 미지(未知)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폴리스가 형성된 후의 서양 철학에서는 이 절대적 존재에 대해 규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성(理性)의 힘을 통해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 수직적 모순과 수평적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의 본질에 해당하는 보편적 원리를 밝히면 이를 통해 개체들의 다름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모든 개체들이 모순이 없는 체계 속의 정당한 구성 요소들로 규정됨으로써 개체의 정체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보편적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체들의 이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고 논리적 정당화의 과정을 통해 다투는 방식인 ‘쟁론’이 중요해졌다.

중국 상고 시대의 경우에도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 존재는 미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춘추 시대 이후 공자의 사상을 ㉡ 계승한 학자들의 관심은 절대적 존재와의 수직적 관계로부터 인간과 다른 인간들과의 수평적 관계인 인아(人我) 관계로 ㉢ 이동해 갔다. 그들은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외면하였고 다툼을 일으키는 수평적 개체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했다. 그들은 집단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인(仁) 또는 예(禮)와 같은 구체적인 도덕적 가치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체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체보다 집단의 질서를 우선시하여 그 집단의 가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한 집단에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가치에 따르며 자신을 드러내기를 삼가는 방식인 ‘장표’가 중요해졌다.

이 두 방식은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과 해결의 과정이 모두 다르지만 인간이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체가 끝없이 답을 내려도 그것이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후자는 불안을 ㉣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외면하고 집단 내에서 개체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해결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두 방식은 도시 문명이 본격화되며 성곽안의 공간에서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에 고안된 인간 중심적인 방식이다.

반면 이들과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이 있다. 가장 원시적인 이 방식은 개체에게 다가오는 수직적, 수평적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며,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둔다. 개체의 능력으로 절대적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도 자체가 무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개체 간의 모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각 개체는 모두 절대적 존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으므로 개체들은 절대적 존재로부터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에 자신을 맡기고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간다. 여기서 ‘카리스마’는 절대적 존재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을 뜻한다. 개체들은 자신이 밭 딛고 살아가는 환경에 맞춰, 카리스마를 부여받아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에 임시적으로 기생(寄生)하며 그 대상의 변화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이 방식은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지도 외면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실존적 불안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에 제각각 기생하는 것을 곧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 살아간다.

앞의 두 방식과 비교할 때 이 방식의 특징은 모순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과 ㉤ 개체의 정체성을 임시적인 것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양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쟁론이나 상보를 중시하는 방식이 최근 2, 3천 년 이래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인간 중심의 도시의 논리라고 한다면 이 방식은 인간이 지금껏 거쳐 온 몇 십만 년의 시간과 삶 속에서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존재 양식으로 온몸에 각인해 온 야생의 논리라 할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 월등한 지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동물의 특화된 생존 능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29.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두 방식을 비교하여 분석한 후 또 다른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② 실존적 불안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여 사회 변화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③ 실존적 불안의 상반된 양상을 사례로 들어 여러 학설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실존적 불안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⑤ 실존적 불안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차를 나열한 후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3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중국의 상고 시대에는 수직적 모순에 대한 해결보다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했다.
② 폴리스 형성 이전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③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원시적인 방식이다.
④ 폴리스 형성 이후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와 개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순을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은 개체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개체 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31. **쟁론**과 **상보**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쟁론은 절대적 존재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상보는 절대적 존재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확립되었다.
 - ② 쟁론이 개체 간 다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면, 상보는 개체 간 다름을 아우르는 동일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 ③ 쟁론은 상보와 달리 개체의 다름을 보편적 원리를 통해 하나의 모순 없는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 ④ 상보는 쟁론과 달리 성곽 안의 공간에서 개체가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 ⑤ 쟁론과 상보는 모두 개체의 존재와 소멸을 주관하는 미지의 대상을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둔다.

32. 다음은 윗글을 읽은 A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와 이에 대한 상호 평가 결과이다. 평가가 올바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활동 과제] '도시의 논리'와 '야생의 논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보자.		
A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 내용		상호 평가
공 통 점	◦ '도시의 논리'와 '야생의 논리'에서는 모두 집단의 질서를 우선시하여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적절함 ㉠
차 이 점	◦ '도시의 논리'에서는 '야생의 논리'와 달리 개체들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났다.	적절함 ㉡
	◦ '야생의 논리'에서는 '도시의 논리'와 달리 수직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려고 했다.	부적절함 ㉢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3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 간 정체성이 충돌할 때 다른 개체의 정체성을 우선하여 따른다.
 - ② 개체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춰 대상에 카리스마를 부여하여 기생한다.
 - ③ 여러 개체들이 각인해 온 존재 양식을 모두 수용할 때까지 정체성에 대한 규명을 유보한다.
 - ④ 개체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는다.
 - ⑤ 카리스마를 부여받아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에 맞춰 개체의 정체성이 가변적으로 정해진다.

3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라져
 - ② ㉡: 이어받은
 - ③ ㉢: 옮겨
 - ④ ㉣: 바로잡기
 - ⑤ ㉤: 뛰어난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고 하는데,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중 단어 분류가 가지는 공통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주로 체언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 말하는 이의 놀람, 느낌, 부름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구분된다.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지만 어떤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같이’의 경우, ‘같이 가다’에서는 부사로, ‘소같이 일만 하다’에서는 조사로 쓰이고 있다. 품사 통용은 중세 국어에도 있었는데, 현대 국어의 품사 통용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가 중세 국어에서는 품사 통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로만 쓰이는 ‘어느’를 살펴보자.

- (ㄱ) 어느 뉘 請히니(어느 누가 청한 것입니까?)
(ㄴ) 迷惑 어느 플리(미혹한 마음을 어찌 풀 것인가?)
(ㄷ) 이 두 말을 어느 從히시려뇨
(이 두 말을 어느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중세 국어에서 ‘어느’는 (ㄱ)에서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로, (ㄴ)에서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였다. (ㄷ)에서 ‘어느’는 ‘어느’에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여기에서 ‘어느’는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였다.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로만 쓰이는 ‘어느’가 중세 국어에서는 관형사, 부사, 대명사로 두루 쓰인 것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과연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
ㄴ. 합격 소식을 듣고 그가 활짝 웃었다.
ㄷ. 학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

- ① ㄱ의 ‘과연’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이군.
② ㄱ의 ‘두’는 대상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군.
③ ㄴ의 ‘웃었다’는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군.
④ ㄷ의 ‘학생’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군.
⑤ ㄷ의 ‘는’은 체언에 붙어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이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가)에서 ‘이’는 두 개의 품사로, ‘새’는 하나의 품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 (나)를 통해 ‘이’와 ‘새’의 현대 국어에서의 품사를 알아보고 중세 국어와 비교해 봅시다.

[자료]

- (가) 현대 국어
◦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이 사과는 맛있다.
◦ 새 학기가 되다.
(나) 중세 국어
◦ 내 이를 爲히야(내가 이를 위하여)
내 이 도를 가져가(내가 이 돈을 가져가서)
◦ 새 구슬리 나며(새 구슬이 나며)
이 나래 새를 맛보고(이날에 새것을 맛보고)
새 出家호 사르미니(새로 출가한 사람이니)

- ① 현대 국어에서 ‘이’는 대명사로도 관형사로도 쓰이고 있군.
② 현대 국어에서 ‘이’의 품사 통용은 중세 국어 ‘이’의 품사 통용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③ 중세 국어에서 ‘새’는 대명사로도 부사로도 쓰였군.
④ 중세 국어에서 ‘새’는 현대 국어의 ‘새’와 동일한 품사로도 쓰였군.
⑤ 중세 국어에서 ‘새’는 다양한 품사로 두루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 ‘새’는 품사 통용이 나타나지 않는군.

37.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 음운이 다른 음운과 만날 때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은 그 양상에 따라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음운 변동은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 ① ‘물약[물락]’에서는 첨가와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② ‘옴는[음는]’에서는 탈락과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③ ‘값하다[가과다]’에서는 탈락과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④ ‘급행요금[그행뇨금]’에서는 탈락과 축약과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⑤ ‘넓죽하다[넙쭈카다]’에서는 탈락과 교체와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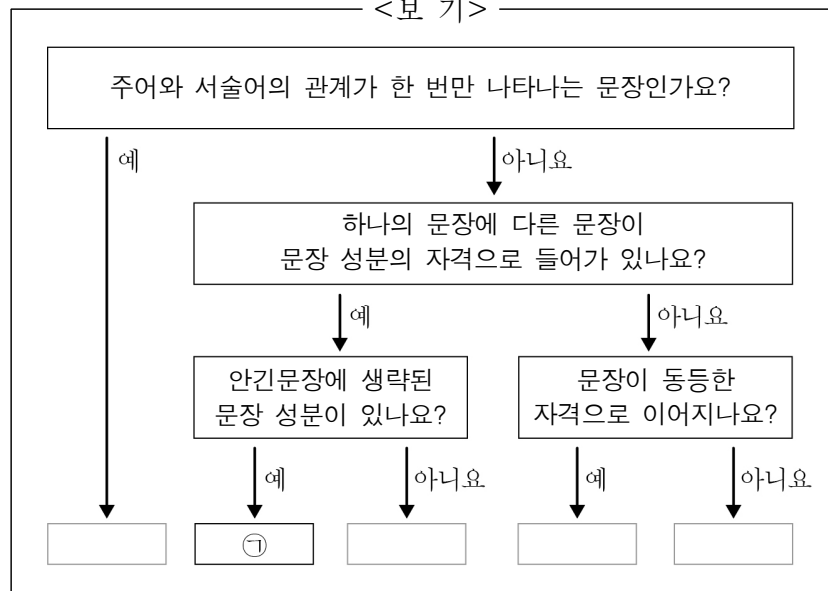
— <보 기> —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건이다.’에서 ‘갖은’은 ‘가진’을 잘못 쓴 예이다. ‘갖다’는 본말 ‘가지다’의 준말로, ‘갖다’와 ‘가지다’는 모두 표준어이다. 그런데 ‘갖다’는 ‘갖고’, ‘갖지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지만 ‘갖아’, ‘갖으며’와 같이 활용할 수는 없는 데,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디디다/내딘다, 서투르다/서툴다,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 건드리다/건들다’ 등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본말의 활용형만 쓴다.

- ① 그녀는 새로운 삶에 첫발을 내딘었다.
- ② 아저씨가 농사일에 서투르 줄 몰랐다.
- ③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서 설 생각이다.
- ④ 서두르지 않으면 출발 시간에 늦겠다.
- ⑤ 조금만 건드려도 방울 소리가 잘 난다.

39.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① 아버지가 만든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
- ② 어머니는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 ③ 그녀는 지난주에 고향 집으로 떠났다.
- ④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 ⑤ 형은 개를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하다.

[40~42] (가)는 학생들이 ‘고전 소설 UCC’ 제작 준비를 위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진희’가 작성한 이야기판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전 소설 UCC 제작 대화방

애들아, 만나기 어려우니까 영상 구성에 대해 여기서 이야기해 보자. 진희

민수: 좋아.^^ 우리가 선택한 <운영전>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 만큼 두 인물을 중심으로 영상을 구성해야 할 것 같아.

서영: 그래. 공녀 운영과 선비 김 진사의 만남,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을 표현해 보자.

지호: 만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운영과 김 진사가 처음 만날 때 운영이 자기 손에 튼 먹물 방울에 수줍어하는 모습에 나도 같이 설레더라.

나도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런데 안평대군은 주인공들을 만나게도 했지만 가로막기도 했잖아.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어때? 진희

민수: 그래. 안평대군도 포함해서 소개하고 인물 소개 장면에서 설명하는 자막과 내레이션을 넣자. 그리고 전체 줄거리도 넣어야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것 같아. 그럼 영상을 소설 제목 소개, 등장인물 소개, 줄거리 소개로 구성하는 걸로 하자. 진희

민수: 우선 소설 제목을 소개할 때는 마주보는 주인공의 모습을 화면에 넣자.

서영: 좋아. 그리고 소설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면 좋겠어. 다들 내가 보낸 음악 한번 들어 봐.

서영: [음악 파일 전송: 해금 연주.mp3]

지호: 들어 보니까 정말 좋다. 줄거리 소개 부분에도 다른 배경 음악을 넣어 볼까?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레이션도 넣고.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줄거리 소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희

지호: 있잖아. 줄거리는 내가 정리한 게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볼래?

지호: [문서 파일 전송: 운영전 줄거리.txt]

정리 잘했다. 이 자료 보고 내가 줄거리 소개에 쓸 장면을 골라 볼게. 아, 그리고 영상에 우리 이름도 넣어놔지? 진희

민수: 물론이지. 영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넣자.

알았어. 그럼 내가 이야기판 초안을 만들어 볼게. 나중에 조연 부탁해. 진희

(나)

이야기판 1 - 소설 제목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마주보고 있는 두 주인공의 모습 제시
 - 만든 이 이름 제시
- 배경 음악: 구슬픈 해금 연주

[화면 구성]



이야기판 2 - 등장인물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운영 → 김진사 → 안평대군 순서로 등장
 - 자막으로 각 인물의 특징 제시
- 내레이션: 자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화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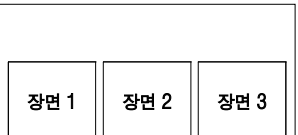


이야기판 3 - 줄거리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주요 장면을 차례대로 제시
- 배경 음악: 사랑 노랫말의 음악
- 내레이션: 각 장면에 따라 줄거리 소개

[화면 구성]



40.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호’는 매체상에서 공유된 음악 자료를 자신이 수집한 음악 자료와 비교하고 있다.
 - ② ‘지호’는 자신이 정리한 문서 파일을 대화 참여자들 중 특정 참여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③ ‘진희’는 매체상에서 전송된 문서 파일 자료를 바로 확인한 후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 ④ ‘진희’는 매체 자료의 특징을 활용하여 대화방을 만들고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 주고 있다.
 - ⑤ ‘서영’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41.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을 때,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야기판 1을 보니 소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슬픈 해금 연주를 배경 음악으로 사용했군.
 - ② 이야기판 1을 보니 소설 제목과 주인공에 주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영상을 제작한 학생들의 이름을 화면 아래쪽에 넣었군.
 - ③ 이야기판 2를 보니 등장인물의 특징을 소개하기 위해 자막을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했군.
 - ④ 이야기판 3을 보니 주요 장면을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선정하고 차례대로 제시하며 줄거리를 소개했군.
 - ⑤ 이야기판 2와 3을 보니 영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레이션을 활용했군.

42. <보기>는 학생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 이야기판이다. ㉠~㉢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야기판 1 - 소설 제목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마주보고 있는 두 주인공의 모습 제시
 - 만든 이 이름 제시
- 배경 음악: 구슬픈 해금 연주

[화면 구성]

㉠ **운영 전**
- 역을 한 방울로 이어진 만남 -



서영, 진희
민수, 지호

이야기판 2 - 등장인물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운영 → 김 진사 → 안평대군 순서로 등장
- 안평대군은 두 주인공 사이에 위치
- 자막으로 각 인물의 특징 제시

◦ 내레이션: 자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화면 구성]

운영	안평대군	김 진사
자막	자막	자막

㉢

이야기판 3 - 줄거리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주요 장면을 차례대로 제시

㉢ **배경 음악**: 가사 없는 음악

◦ 내레이션: 각 장면에 따라 줄거리 소개

㉢ [화면 구성]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	장면 5	장면 6

- ① ㉠: 주인공들의 인연이 부각되도록 인상적인 장면을 담은 부제를 넣자.
- ② ㉡: 주인공을 가로막는 인물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등장인물의 등장 순서를 바꾸자.
- ③ ㉢: 등장인물의 모습을 가리지 않도록 자막 위치를 옮기자.
- ④ ㉠: 내레이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사 없는 음악으로 배경 음악을 바꾸자.
- ⑤ ㉢: 줄거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의 개수를 늘리자.

[43~45] (가)는 인터넷 신문이고, (나)는 라디오에서 방송한 대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문
[연재] 지도와 세상 이야기②
2021년 7월 ○○일(○)

우리 바다 ‘동해’ 바로 알고, 지명 표기 방법 고민해야

입력 2021.7.○○. 오전 7:06 최종 수정 2021.7.○○. 오후 3:02

동해가 세계 지도에 단독 표기되었거나 일본해와 병기된 비율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세계 지도상에는 일본해로 표기된 경우가 많다. 기록을 살펴보면 동해는 우리 민족사에서 단순히 ‘동쪽 바다’만 의미하지 않았고, 해가 뜨는 바다로서 신성함과 기원의 대상이었다. 또한 『고려사』에는 왕건이 고려 건국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글에서 “동해의 끊어진 왕통을 이어 나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왕건이 말한 동해는 고구려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동해가 국호와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현재 동해의 영문 표기는 ‘EAST SEA’이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이 간직한 동해에 대한 정서는 없고, 단순히 동쪽에 자리한 바다만을 가리킬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착 지명인 동해를 사용하여 영문 표기를 ‘DONG HAE’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해의 이름 되찾기 연구를 지속해 온 김△△(◇◇박물관장)은 동해의 지명 표기를 ‘DONG HAE/EAST SEA’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ONG HAE/EAST SEA’로 표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자리한 동해의 의미를 부각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동해를 ‘EAST SEA’라고 주장했던 외교적 원칙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명은 담고 있는 의미가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에 각인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본해가 아닌 우리 바다 ‘동해’를 세계 지도상에 올바르게 표기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최□□ 기자(news@ooo.com)

㉠ **[관련된 뉴스]**

- ▶ 동해 표기의 역사, 우리 정부와 시민 단체의 노력
- ▶ 국제수로기구, 동해나 일본해 대신 고유 번호 표기 논의

댓글 6개

○○○**** 2021.7.00. 9:03

저희 학생 동아리에서도 동해 표기와 관련된 자료를 게시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http://blog.○○○.com] 링크로 들어오셔서 의견 남겨 주세요.

[답글 3]

👍 6 🗨 2

△△△**** 2021.7.00. 16:57

이런 기사 좋아요! 다음 기사도 기대할게요.

[답글 1]

👍 1 🗨 0

(나)

진행자: (12시 정각을 알리는 음향 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12시 현재, ‘생방송 뉴스를 듣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도와 세상 이야기’라는 연재 기사를 쓰고 있는 최 □□ 기사를 모시고 ㉔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동해의 지명 표기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어제 신문에 두 번째 연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동해의 지명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기자: 맞습니다. 동해는 우리 민족사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되거나, 단순히 방위의 개념을 표현한 지명으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기사를 통해 독자들이 동해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청취자께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 주셨네요. “세계 지도에 우리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을 다른 분들도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표기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 있었나요?

기자: 네. ㉕ 1919년 국제수로국을 창설하기로 결의한 후, 1923년 국제수로국 회의에서 일본이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등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고착된 것이지요.

진행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동해의 지명 표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긴급 뉴스 속보가 들어온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못 다한 이야기는 누리집의 다시 듣기 서비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3.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전달 매체	인터넷	라디오
매체 자료 생산자	기자	진행자와 기자
매체 자료 수용자	신문 독자	대담 청취자

- ① (가)의 댓글을 보니 매체 자료 수용자인 독자가 또 다른 생산자가 될 수도 있군.
- ② (가)는 전달 매체 특성상 탑재와 동시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한번 생산한 매체 자료의 내용은 다시 수정할 수 없겠군.
- ③ (나)는 다른 매체를 추가로 활용하여 매체 자료 수용자와 양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군.
- ④ (나)는 송출할 수 있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다시 듣기 서비스로 이를 보완하고 있군.
- ⑤ (가)는 문자, 도표, 영상으로, (나)는 음성, 음향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군.

44. (가)와 (나)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마지막 문장을 명령형으로 종결하여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가): 간접 인용 표현을 써서 『고려사』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③ (가): 표제를 피동으로 표현하여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정보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 ④ (나): ‘기자’는 현재 시제만을 활용하여 현장감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⑤ (나): ‘진행자’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거나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대신하는 표현을 써서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할 때, ㉑~㉕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매체 수용자는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자료에 담긴 관점과 가치가 공정한지, 자료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제시된 정보나 자료는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등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비판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매체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매체 형식에 따라 정보를 적절하게 수용하며, 매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수용자가 되어야 한다.

- ① ㉑: 검색을 통해 통계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여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판단해야겠어.
- ② ㉒: 전문가의 인터뷰 동영상 내용을 분석하며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타당한지 점검해 봐야겠어.
- ③ ㉓: 관련된 뉴스 내용을 확인하고 기사 내용과 비교하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수용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어.
- ④ ㉔: 매체 특성상 이야기의 세부 내용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적절하게 수용해야겠어.
- ⑤ ㉕: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내용이므로 매체 자료에 담긴 관점이 공정한지 평가해야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